

제7장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B 불교경전에 제시된 죽음이해

『능엄경』에 따르면 아난은 붓다의 설법을 듣기만 했을 뿐 번뇌에서 벗어난 무루(無漏)의 경지를 증득하지 못해 마등가녀의 사비가라 주문에 걸려 음란한 일에 떨어졌다. 아난은 이는 참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붓다는 얼굴에서 광명을 발하신 다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떠나면 과거로부터 미혹하여 업의 종자가 마치 악자취와 같다.¹⁾ 수행인들은 위없는 보리를 이루지 못한 채 소승의 과보인 성문, 연각이 되기도 하고 외도, 하늘의 신선, 마왕과 그 권속이 되기도 한다. 이는 바로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두 가지 근본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생사근본’(無始生死根本)이니, 그대는 지금 여러 중생과 더불어 인연을 짓는 그 마음을 자기 성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는 ‘시작을 알 수 없는 보리 열반의 원래 청정한 자체’(無始菩提涅槃元清淨體)로, 이제 그대의 밝은 식정원명(識精元明)이 능히 여러 인연을 지었지만, 그 인연으로 인해 원래의 밝은 식정을 잃고 있다.²⁾

식정원명(識精元明)은 육근에 본래 갖추어진 불생불멸을 뜻한다고 풀이하므로 8식에 해당된다. 8식으로 인해 여러 인연, 즉 육식이 생겨났지만 이와 같이 인연에 따라 생겨난 마음을 자신의 참마음으로 잘못 아는 까닭에 원래 갖추어진 밝은 마음을 잃게 되었다고 부처님께서 지적하셨다. 따라서 중생들은 본래 밝은 마음을 잃었기에 종일토록 밝은 마음을 사용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육도세계에 제 발로 들어가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중생들이 알 수 없는 떠나면 과거로부터 생사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은 참마음의 자성이 청정하게 밝게 빛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³⁾ 이와 같이 중생들은 본래의 밝은 마음을 잃었기에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1) 악자취는 인도의 식물의 이름으로, 나뭇가지마다 세 개의 열매가 열린다.세 가지 열매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三毒)을 상징한다.

2) 『능엄경』 1권 43쪽

3) 『능엄경』 1권 32쪽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미혹에 빠져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사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들은 어리석게도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된 것을 자기 육신으로 여기고 육진(六塵) 대상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래의 수행인지에서 원융한 깨달음을 닦아 그것이 허공 꽃인 줄 알게 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생사에 부침할 몸과 마음이 원래 있는 게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애써 노력해 몸과 마음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은 근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4)

중생들은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해 본래 갖추어진 불성에 미혹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란 세 가지 독을 일으켜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된 것이다.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된 육신을 자기 몸으로 착각하고 육진(六塵) 대상과의 관계 아래 성립된 망상을 자기 마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허공에는 아무런 꽃도 없거늘 눈병 난 중생이 어리석게도 허공 꽃에 집착하는 것이다. 사대로 된 몸이 자기 육신이 아니건만 자기 육신으로 착각하는 까닭에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자기 존재가 원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생멸한다고 착각하므로 생사에 윤회하게 된다. 5)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또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12연기는 생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중생의 삶,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무명은 밝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1 무명, 2 자기중심적 행위(行), 3 의식(識), 4 인식대상(名色), 5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入), 6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觸), 7 감정이나 느낌(受), 8 좋거나 싫다는 애착(愛), 9 구체적 행동(取), 10 잠재적 형태(有), 11 존재(生), 12 늙음과 죽음(老死).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이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는 삶을 이런 방식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를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말한다. 유전연기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부침하는 중생의 삶을 가리킨다. 6)

4) 『한글세대를 위한 원각경』 38, 41쪽

5) 『기신론』에서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음을 말한다. 첫째 마음의 진여문, 둘째 마음의 생멸문. 마음의 진여문은 불생불멸 생멸이 끊어진 자리이다. (『감산의 기신론 풀이』 서광사, 1992년, 56-59쪽)

6) 불교는 일반적으로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말한다. 천상, 수라(修羅), 인간, 축생(畜生), 아귀(餓鬼), 지옥 여섯 가지 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여섯 가지 세계는 우리의 여섯 가지 부정적인 감정, 자만, 질투, 욕망, 무지, 탐욕, 그리고 분노의 인과응보이다. (『티베트의 지혜』 195-196쪽)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이어져 나가는 12연기의 매듭을 끊어야 하는데, 고통의 원천인 무명을 밝음으로 전환하는 일이 우선된다. 붓다가 맨 먼저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윤회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무명이다. 무명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매는 것이다. 무명이 없어지면 자기중심적 행위도 없어지고 차례로 의식, 인식대상, 감각기관도 자기중심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고통의 사슬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환멸연기(還滅緣起)로, 생사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다. 환멸연기는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12연기도, 중생이 생사윤회로 고통받는 삶의 방식과 함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C 티베트의 죽음이해

『티베트의 지혜』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이 책은 티베트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일종의 사후세계에 대한 안내서 같은 성격의 책이다.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또는 죽은 이후에 스승이나 주위 사람이 그를 위해 읽어주는 책이다. 티베트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 옆에서 그의 귀에 대고 이 책을 읽어준다. 시신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쓰던 침대나 의자 옆에서 그의 영혼을 불러, 그 영혼이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어준다. 티베트인들은 죽어가는 사람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서 전제하고, 이 책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들려준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원래 제목은 ‘바르도 퇴돌 첸모(Bardo Todrol Chenmo)’이다. “바르도 상태에서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위대한 해탈을 성취한다(Great Liberation through Hearing in the bardo)”는 뜻이다.

‘바르도’ 개념은 티베트인의 생사관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 ‘바르도’의 ‘바르(Bar)’는 ‘사이’를 뜻하고 ‘도(Do)’는 ‘매달린’ 혹은 ‘던져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바르도’란 하나의 상황의 완성과 다른 상황의 시작 사이에 걸쳐 있는 ‘과도기’ 혹은 ‘틈’을 의미한다. 바르도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중간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인간은 삶과 죽음 사이에 걸쳐 있는 과정적 존재라는 뜻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넓은 것인지 바르도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르도 가르침에 따라 우리 존재 전체를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바로 지금의 삶이라는 고통스러운 바르도

둘째 임종과정이라는 고통스러운 바르도

셋째 다르마타라는 밝게 빛나는 바르도

넷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바르도

첫째 바르도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모든 기간에 해당된다. 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엄청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지금 이 삶의 바르도는 수행을 통해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죽음준비를 하기 위한 유일한, 최선의 기간이라고 한다. 둘째 바르도는 임종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내적인 호흡’이 끝날 때이다. 죽음의 순간 근원적 광명이라 불리는 마음의 본성이 떠오르면서 절정에 달하게 된다. 셋째 다르마타라는 밝게 빛나는 바르도는 마음의 본성이 밝게 빛을 내기 시작한 이후의 온갖 경험을 포함한다. 넷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바르도는 일반적으로 바르도, 중음상태라 일컫는데 우리가 다시 생명을 받아 태어날 때까지 지속된다.⁷⁾

따라서 바르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 그리고 죽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삶만 알고 있을 뿐, 죽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바르도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의 이 삶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는 바르도까지 포함해 말하고 있다. 네 가지 바르도 개념에 비추어볼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에 대해 확고한 생사관을 갖춘 티베트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티베트 불교에서 따르면 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일상적인 마음, 티베트어로 셴 sem이라 일컫는다. 분별의식, 외적인 것을 수용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다. 셴은 생각하고 조작하고 꾸미는 마음, 성냄의 파도로 불타오르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마음. 일상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외부의 영향, 조건에 좌우된다. 셴은

7) 『티베트의 지혜』 181-182쪽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은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지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불교의 경우 그런 의문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왜냐하면 바르도 개념은 삶과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자연스럽게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짝 열린 문아래 놓여 주변의 온갖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나 다름없다. 티베트어로 육신은 ‘뤼’라고 불리는데 수하물처럼 사람이 떠난 뒤에 남는 것을 의미한다. ‘뤼’라고 말할 때마다 티베트인들은 인간이란 이 삶과 육신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믿을만한 게 못된다. 우리 마음은 설새없이 이리저리 튀어 다니는 벼룩이나 다름없다. 생각은 아무 이유 없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우리는 매순간마다 변덕스러운 마음에 이끌려 다닌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육신이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을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름, 배우자, 가족, 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그 정체성이란 무수한 사물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깨지기 쉬고 일시적인 버팀목일 뿐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 죽을 때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해 맹목적으로 의존했고, 그렇게 열심히 계속 살아있게 하려고 애썼던 육신을 뒤에 남기고 떠난다. 우리에게 친숙한 육신과 의식상태가 오직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죽는 순간 자기 마음에 의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마음의 본성, 티베트어로 리그파는 어떤 변화, 심지어 죽음에 의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마음의 본성은 황급히 줄달음치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 가려진 채 썸 안에 숨겨져 있다. 강한 돌풍이 구름을 쫓아내 빛나는 해와 푸른 하늘을 드러내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 리그파는 드러날 수도 있다. 리그파는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때문지 않은 의식으로 항상 밝게 빛난다.⁸⁾

무상함에 담긴 헤아리기 어려운 메시지, 무상함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깊이 심사숙고하면 불교 가르침의 핵심, 마음의 본성에 닿게 된다. 마음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 품 안에서 전 우주가 전개되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은 삶과 죽음의 토대인 것이다.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본성을 제시해 자신이 실현한 것을 공유하고자 했다.

8) 『티베트의 지혜』 89-91쪽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본성, 즉 불성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붓다라 할지라도 증대시킬 수 없고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불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 불성은 하늘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구름에 견줄 수 있다. 어느 날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뒤덮인다. 지상에서 보면 하늘에 구름 이외의 것이 있다고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면 맑게 질푸른 하늘이 무한하게 펼쳐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불성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불성에 대해 티베트의 뒤쭈 린포체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말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 없다.

어떤 예로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윤회가 그것을 더욱 나쁘게 할 수도 없고

열반이 그것을 더욱 좋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결코 생겨나지도 않았다.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로워진 적도 없고

그것은 결코 미혹된 적도 없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한계도 없다.

그것은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9)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마음의 본성이 지니는 깊이와 영광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

9) 『티베트의 지혜』 94쪽

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마음의 본성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깨닫기 어렵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듯 우리는 마음의 본성을 바라보기가 어렵다. 둘째 마음의 본성은 너무나 심원해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 마음의 본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모른다. 셋째 마음의 본성은 너무나도 쉬워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마음의 본성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의식에서 쉬는 일뿐이다. 넷째 마음의 본성은 엄청나게 놀라워 우리가 적응할 수 없다. 마음의 본성은 참으로 방대해 우리의 편협한 사고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깨달음이 우리 마음의 실제 본성이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다. 10)

티베트의 바르도 가르침은 우리가 미리 죽음을 준비할 때 일어나는 것과,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을 때 닥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만일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죽은 그 순간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바로 지금 이 삶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금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은 황폐해지고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충분히 살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자신, 바로 그 상태에 갇혀버리고 만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우리는 끝없는 환상의 나라, 생사의 끝없는 순환, 붓다가 윤회라고 일컬은 고통의 바다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바르도 가르침의 근본 메시지는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삶과 죽음 모두에 커다란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다. 바르도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놀랍고도 영원할 끝없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런 자유는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삶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닦은 사람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의 순간이다. 11)

10) 『티베트의 지혜』 95, 96쪽. 뒤쭌 린포체는 그의 유명한 깨달음의 선언에서 이렇게 썼다. “현재의 순수 의식이 붓다 바로 그것이기 / 열린 태도와 평온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는 내 마음의 라마를 발견했다. / 이처럼 무궁무진한 자연 그대로의 마음이 바로 라마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 더 이상 애착하고, 움켜잡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거나 갖가지 불만을 터뜨릴 필요조차 없게 된다. / 이렇게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 열려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쉬으로써, / 무엇이 일어나든지 인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기 해방의 축복을 얻게 된다.” (『티베트의 지혜』 86, 87쪽)

11) 『티베트의 지혜』 36쪽

바람직한 죽음정의(定義) 모색

따라서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므로, 죽음의 정의 역시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결과 사람들은 육체에만 국한되는 그런 삶, 지나치게 세속적인 삶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과정으로 본다면,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을 육체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보다 깊이 영혼, 영성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고 죽음방식이 보다 성숙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은 결코 올라갈 수 없다.¹²⁾ 삶과 죽음을 통한 여행으로 자기존재를 이해할 경우,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세속주의나 물질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죽음정의와 관련해 다음같은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죽으면 다 끝난다면 심폐사, 뇌사가 죽음정의일 수 있다.
-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므로, 죽는다고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다. ¹³⁾
- 죽음이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인간존재 전부가 죽는 것은 아니다.¹⁴⁾
- 따라서 심폐사, 뇌사는 죽음정의가 아니라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일 뿐이다.
- 육체가 죽으면 시신으로부터 3일반을 전후해 영혼이 분리된다.
- 주검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
- 그러므로 죽음이란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12) 생사학 전문가들은 죽음문제를 영혼이나 영성과 결부시켜 연구하고 있다. Kenneth J. Doka와 John D. Morgan은 *Death and Spirituality* (Baywood, 1993)을 펴낸 바 있고, 영성적 관심, 사별과 영성적 위기, 영성적 보살핌, 영성과 상담 등등에 관해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13)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에 4가지 측면이 있다. :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당연히 영혼이나 영성,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건강에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 4가지 측면이 있다면, 죽음도 당연히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14) 생사학의 창시자, 퀴블러 로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 사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아암 등으로 죽음에 직면한 어린아이들을 향해 그는 말했다. “우리 몸은 형겼으로 만든 번데기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죽으면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나비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간다.”

- 단지 육체만 사라질 뿐이다.

죽음을 육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육체의 죽음은 분명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이고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이다.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일 뿐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퀴블러 로스가 생사학의 연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면서까지 생사학 연구에 몰두한 것도, 또 생사학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 죽음은 끝이 아니므로 죽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이해와 그 방식, 죽음의 이해와 그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사체험자들은 죽음의 순간 마치 허물 벗듯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렸다. 죽음은 흡사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육신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보다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신이란 허물 뿐이다. 죽은 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봄이 와서 겨울코트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죽음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15)

그러므로 생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죽음은 두 가지 이유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죽음정의에 대한 논의를 심폐사나 뇌사같은 죽음판정 기준이 대신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죽음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죽음정의(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16) 둘째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고, 죽음의 순간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므로,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존재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 끝이 아니므로,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7)

15) 퀴블러 로스, 최준식역 『사후생』 39쪽

16) 얼마 전 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10여년간 근무했던 간호사가 찾아와 의사와 간호사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임종환자 의료지침을 통해 안락사 법제화를 요구해왔지만, 우리 사회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해 의협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죽음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 사회에서, 더구나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죽음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엄사를 법제화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죽음을 타부시했다. 죽음을 일상대화의 주제로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죽음문화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엄사를 성급하게 법제화한다면,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7) 생사학과 호스피스와 관련해 현대의 고전의 평가받고 있는 『티베트의 지혜』의 저자 소갈 린포 체는 죽으면 다 끝나느냐 아니냐, 혹은 죽은 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증명이나 논 증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있게 이해하느냐 여부에 달 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Gary doore ed. What survives? (Tarcher putnam Book, 1990) 203쪽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그토록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인지, 불행하게 죽어 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그리고 자살사망률이 왜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인지 문제를 추적해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작용하지만 그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오해, 육체 중심의 인간이해와 죽음정의를 오해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